

해남 기업도시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

7개 투자기업 업무협약...40MW 규모 25개동 2037년까지 점진 유치 1GW 태양광 발전단지서 전력 공급...데이터센터 시장 선점 기반 마련

전남이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우뚝 성장하기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해남군 기업도시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전남도, 해남군, 한국전력, 전남개발공사 및 7개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도시 내 구성지구에 데이터센터 파크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내 데이터센터 선도기업인 삼성물산, LG CNS, NH투자증권, 보성산업, TGK,

대우시스템즈, 코리아DRD 등 7개 기업이 참여했다.

TGK는 이미 지난해 9월 전남도와 40MW 규모의 데이터센터(5개)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다.

협약에 따라 7개 기업은 기업도시 집적화단지에 4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25개동을 오는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목표 규모는 1GW에 이른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가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6월 기업도시 비전을 발표하면서 농림부 소유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일대 1085만㎡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 1조 78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구성지구 내 데이터센터파크를 운영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데이터센터파크는 99만㎡ 규모로 오는 2037년까지 연구개발기능을 갖춘 기판들로 집약해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파크가 조성되면 반도체, 인공지능, 냉각장치, 서버 장비 등 다양한 전·후방 분야 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기업도시 데이터센터파크로 조성으로 공사단계부터 14조 50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만 8000명 이상의 간접 고용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1GW 운영 시 고용유발효과(1만 6000명), 연간 3조 2000억 원 이상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본격 운영되면 매년 약 200억 원의 지방세 수입도 예상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을 선점하는데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그동안 태양광·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전력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

너지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지방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등을 투자 유치의 지렛대로 삼아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데이터센터의 전남 이전·신규 유치를 공을 들여왔다.

최근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첨단산업의 핵심기반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인 만큼 데이터센터파크 조성 시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이 대한민국 첨단 데이터산업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데이터센터파크 투자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7개국 청년여수·신안서 봉사활동 전남도가 24일 17개국 93명의 청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열었다. 이들 세계 각국의 청년들은 1주일간 여수 개도와 금오도, 7월 신안 도초도와 비금도에서 각각 '2026여수세계섬 박람회'와 '세계자연유산'을 주제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농관원 공익직불제 협업 '성과'

전국 첫 운영...직불금 감액 예방·행정 평가 수상 잇따라

전남도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과 공익직불제 업무협약을 전국 최초로 운영해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되고, 도 자체 적극행정 경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감액·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의 혼선이 많았다.

또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코로나19, 농촌 여건 등으로 추진이 잠시 유보됐던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감액 항목이 다시 시행되면서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농촌 현장에선 65세 이상이 2명 중 1명 수준으로 고령화돼 준수사항 실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두 기관 간 업무 이원화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직불금 감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약을 구성,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시·군 단위까지 확대해 상호 소통·협업을 위한 합동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체제를 통해 ▲라디오 광고 3000회, 현수막 718개소 등 공동홍보로 농업인 혼란 방지 및 예산 절감 ▲농관원의 폐경 등 직불금 감액 우려 필지 사전 점검 내용을 전달받아 지자체와 농가에 안내함으로써 직불금 42억원 감액 예방 등 성과를 냈다.

특히 글을 모르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그림일기 형식의 간편 기록 영농일지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미작성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아이돌봄 광역 지원센터 오늘 개소 광주 도시공사 임원 공모

5개 자치구 컨트롤타워...인력 양성·힐링 프로그램 진행

광주 자치구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총괄해 지원하는 '아이돌봄 광역 지원센터'가 25일 광주 서구 양동에 문을 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역센터는 아이 돌봄비 수급을 조절하고 보호자와 돌봄비 등을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한다. 광주 5개 자치구 아이돌봄 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돌봄 인력 양성 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본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종일제 서비스

와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로 구분된다.

지난 6월 현재 광주 1982가구에서 19만 7318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전순희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광주시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가구 서비스 연계 매칭률이 96.8%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가정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도시공사는 "경영이사, 사업이사, 상임감사 등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다음 달 해당 직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며,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을 거쳐 임원 최종 후보자 2배수 이상을 임명권자에게 추천한다. 상임감사에 대한 임명권자는 광주시장이며,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자는 광주도시공사 사장이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cc.co.kr>)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눔·연대'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 연다

시, 기후변화 주제 27일까지 DJ센터...제품 전시·학술행사 등

나눔과 연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2회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가 25~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박람회는 '함께 그린(Green) 광주 사회적경제, []의 내·외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정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전시·판매, 학술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체험·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판매관과 정책홍보관 등이 선보인다.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전, 전남·전북·제주기 업 홍보관도 마련된다.

최대법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좀 더 이해하고 체감해 가치소비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일상90만원)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등가능, 공과비를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원·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